

□ 인터뷰

94.1.16

‘여성정치상담실’ 여는 손 봉 숙씨

“정치에 뜻을 둔 여성들이 조직기반과 정치지도력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.”

다음달 중순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설로 ‘여성정치상담실’을 개설하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손봉숙 소장(사진)의 다짐이다.

도록 하겠다는 그는 정치에 뜻을 둔 여성이 상담실로 찾아오면 면담을 통해 보완할 점, 강화할 점 등을 알려주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.

대중연설이 부족한 경우엔 배울 곳을 연결해주고, 지역기반이 부족하면 지역사회에서 조직기반을 다지는 방법을 제



‘정치 꿈’ 여성들에 실질적인 도움 주고 싶어

서울 강남에 있는 연구소에 ‘여성정치상담실’ 공간을 마련하고 요즘 한창 상담준비 작업중인 손 소장은 “올 한해 동안 95년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충실히 펴나갈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

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

시하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.

손 소장은 오는 2월3~5일 여성개발원에서 ‘제4기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수교육’도 실시하고, 올 상반기에 여성지도자 개발을 위한 교육지침서도 펴낼 계획이다.

8월쯤엔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할 여성 5명을 선발해 독일

의 지방자치단체 견학도 구상 중이다.

상담실 개설에 앞서 손 소장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재단 주최로 17~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1차 아-태지역 전략기획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한다.